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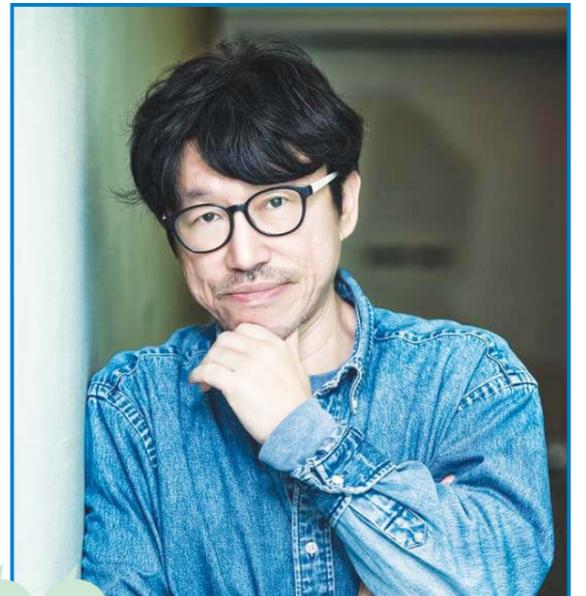
# 시네마로 군산-서천의 아픈 역사 공유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사촌이다. 행정구역 상 광역 시군이지만 이 두 도시는 그 옛날부터 공동생활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14세기 말 고려 왕조의 내홍을 틈타 침입해 온 왜구를 우리 수군이 처음으로 화약무기를 사용해 물리친 진포대첩의 역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젠 아픈 역사를 딛고 대한민국 최고의 근대문화유산과 생태문화 콘텐츠를 가진 군산시와 서천군... 이 두 도시에서 이젠 국내 최초로 역사를 주제로 한 금강역사영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강역사영화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인터뷰 - 김대현 집행위원장



## 두 도시가 지난 공통점 찾아 기획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제로 '최선'

### ▲금강역사영화제는 어떤 행사인가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열리는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역사영화제이며 군산 서천의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리는 행사로 영화라는 문화콘텐츠를 넘어 소통과 화합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제를 통해 상영되는 작품 속에서 담긴 메시지와 그 가치를 몸소 느끼고 영화가 전달하는 역사적 의미를 관객들 각자가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영화제에 앞서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7일 지역 주민들에게 금강역사영화제를 알리고 역사 영화와 독립영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봄이 가도'와 '내 신발에게'라는 상영작은 아직도 바닷속에 진실이 감춰져 있는 세월호 사고를 주제로 담은 작품입니다.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님의 실종자들과 304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안전가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로 만들게 됐습니다.

### ▲군산시와 서천군의 지역주민들과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강역사영화제는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주요 테마로 운영되는 작은 영화제이며 지역은 다르지만 거리가 인접해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두 도시가 지닌 역사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미디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관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영화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임준 시장님 이하 군산시 관계자들과 노박래 군수님 이하 서천군 관계자들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해주신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강역사영화제는 지난 2017년 프리페스티벌에 이어 2018년에 공식 출범해 역사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영화제이다.

군산시, 서천군과 금강역사영화제 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금강역사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는 3개국 15편의 장편영화 작품들이 군산예술의 전당, 군산CGV, 서천 기벌포영화관 외 야외무대에서 상영된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번 영화제는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6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군산시립합창단, 서천 예인스토리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배우이자 전 KBS 아나운서 임성민씨의 사회로 역사적인 2회 금강역사영화제를 시작한다.

1회 금강역사영화제에 이어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된 임성민씨는 현재 미국에서 연기자로서 새롭게 출발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개막축하공연은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크 록 가수 강산애가 독특한 음색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또한 영화제의 색다른 볼거리인 레드카펫 행사에는 이준익(사도, 황산벌), 조민호(항거: 유관순 이야기), 전수일(아메리카 타운), 제제 다카히사(국화와 단두대/일본) 봉만대, 김수현 감독 등 다양한 영화인 게스트가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상영되는 개막작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인 1942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완성도 높은 역사스릴러 <바람의 소리>가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중국 장르 영화의 뛰어난 제작 수준을 체감하고 중국 영화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바람의 소리>는 중국 역사 한국과 비슷한 일본과의 역사적 경험을 나눈 관계였음을 확인하면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뛰어난 작품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 포스터

## 오늘부터 사흘간 군산·서천 일원서

개막작에 역사 스릴러 '바람의 소리'

국내 외 3개국 15편의 역사 영화 상영

주요 상영작은 군산CGV 등서 무료로

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천착하는' 금강역사영화제의 지향을 널리 알리는 작품이기도하다.

20일 오후 7시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폐막식 행사에는 서천군 출신의 한국대표 배우 김진규, 문숙, 백일섭 주연의 폐막작 <삼포가는 길> 상영과 함께 3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올해 금강역사영화제에서는 국내외 3개국 15편의 역사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관동대지진과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일본 국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자스모단과 아나키스트들의 삶과 사랑을 담은 <국화와 단두대>(제제 다카히사 감독, 일본), '가짜 광수' 논란을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걸작 다큐멘터리 <김군>(강상우 감독), 군산시 홀로케이션 작품으로 과거 기지촌 여성의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드러낸 <아메리카 타운>(전수일 감독),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폭발적인 주목을 받은 <항거: 유관순 이야기>(조민호 감독) 등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최근의 <박열>, <동주>를 비롯해 한국 역사영화의 거장인 이준익 감독이 직접 참석해 <사도>와 <황산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류승완 감독이 새롭게 편집한 <군함도 감독판> 상영은 개봉 당시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여 작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차별하게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해어화>(박흥식 감독), <오빠 생각>(이한 감독) 두 작품 역시 개봉 당시 평판과 관객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읽어내고자 한다.

<워커힐에서 만남시다>(한형모 감독, 1966)는 한국 고전영화 재발굴 차원에서 선보이는 작품이다. 서영춘, 트위스트 김, 남정임, 구봉서 등 기라성 같은 올드 스타들을 군산 근대건축관 야외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상영작이다.

금강역사영화제의 주요 상영작은 군산CGV와 서천군 기벌포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운영된다.

부대 행사로는 <역사와 역사 영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군산 출신의 '아름다운' 시인 강형철의 <해방동 일기>를 시인과 함께 다시 보는 행사가 열린다. 특히 <해방동 일기> 행사에서는 해방동 주민들까지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 낭송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와 동화> 세미나를 통해 역사와 문화콘텐츠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 등 역사 자체가 되는 한 해가 되고 있다. 2019년에 열리는 금강역사영화제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소환하고 읽고 새롭게 해석하는 본연의 역할로 더욱 주목받는다.

/군산=김정훈 기자

